



*spring
last dance
poet*

神처럼

가라앉아버린 배와
아직도 울리고 있는 비명을
책으로 요약하고 나자, 나는
흥을 돋워줄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졌다.
그래서 목은 냄새를 풍기는
축축한 찰흙으로 형상을,
움직이는, 안이 비어 있는,
남녀를 빚었다. 두려움
너머에서, 공간을 채우며
춤추는 한 쌍을.

음악을! 여인의 짧고 빠른, 무겁게 끄는,
다리를 한껏 내뻗는 탱고 스텝은
치마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당당하게 그녀를 이끌며 춤추는 사내의
너무도 큰 구두는,
빠르게 돌며 넘어질 듯한 몸에
중심을 잡아주었다.

두 손으로
흙덩이를 부수며, 나는
어린 시절 추었던 빠른 윈스텝을,
춤추며 보냈던 내 유년을,
...
랙그타임을 빚었다.
뒤이은 춤들, 금세 숨이 찼다.
젊어진 나는 神과도 같았다.
담배 파이프는 식은 채로 한쪽에 놓여 있었다.

쿠틀라 그라스의 시와 그림집 《라스트 댄스》에서

- 2002년에 출간한 소설 《게겔음으로 가대Im krebsgang》를 가리킨다.
- 윈스텝One-step : 1911년경 영국에서 시작해 제1차 세계대전 때 미국에서 발달한 사교 댄스. 사분의 이 박자의 경쾌한 춤.
- 래그타임ragtime : 분절음을 많이 사용한 피아노와 재즈 연주의 리듬이자, 1900년대 초 지터버그, 스윙과 함께 즐겨 추었던 흥겹고 빠른 춤.



《라스트 댄스》
쿠틀라 그라스 지음 | 이수은 옮김 | 민음사 | 98쪽 | 값 16,000원